

조손가족을 위한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손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효과

구 향 숙(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오늘날 우리나라는 다양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 중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의 하나는 부부의 이혼과 실직, 파산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또는 부모의 사망, 가출로 인하여 남겨진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 형성된 조손가족이 급격히 늘고 있는 현상이다(박종선, 2012). 조손가족의 경우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조부모가 보호자로서 보살핌을 주는 장점이 있으나 조부모에게 손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의 증가, 세대 차이로 인한 이해 결여 등 심리적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손자녀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다. 조손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하여 과잉행동과 불안행동을 더 많이 하며, 더 미숙하다는 결과(이정미·최명선, 2007)가 있으며, 낮은 자아존중감(송화영, 2008), 학교 부적응(박미자, 2008), 우울, 불안, 철회, 공격성, 일탈 등의 행동 발생 빈도가 높다(박옥임·김진이, 2010)고 보고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표현예술적 통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조손의 가족관계 및 손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향후 조손가족 지원프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C군과 K시에 거주하는 조손가족의 조부모 및 손자녀 각각 8명씩이었으며, 프로그램은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월2회 90분씩 12회기로 수행되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춤치료 내용 6회기와 연극치료 6회기로 구성되었다. 평가도구는 Rosenberg(1979)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경과 이민영(2003)의 가족관계척도를 사용하여 사전 및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IBM SPSS Statistics 19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Cronbach's α 계수, 평균, 표준편차,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조손가족 손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총점 50점 중 사전 22.75점에서 사후 37.25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춤치료 과정에서 2회기 자신에 대한 이해, 4회기 자신의 재능 발견, 5회기 욕구 찾기는 손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느끼도록 활동을 유도하였으며, 연극치료 과정에서 7회기 인생의 모델링 찾기를 통해 미래의 성공적인 모습을 각인시켜 긍정적 자아상을 갖도록 독려했었다. 또한 8-12회기까지 연극 연습을 통해 불편함을 참는 인내를 경험하고, 끝까지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였고, 마지막에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연습한 연극을 발표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조부모 및 주위로부터 인정받는 경험을 얻도록 하였다.

둘째,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손자녀가 지각하는 조손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가족관계척도의 점수가 사전 62.13에서 사후 89.00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하위요인별로는 정서·친밀 요인이 책임·인정 요인과 수용·존중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조모와 손자녀가 함께 한 회기는 1, 3, 6, 9, 12회기 5회였으며, 처음에는 어색한 모습으로 참여에 소극적이던 조모의 모습이 3회기에 손자녀와 친을 이용해 가족을 표현하는 춤을 추면서 현저하게 자기표현이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조손가족의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고, 손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손자녀가 공유하는 활동을 포함한 표현예술치료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효과를 증대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지역과 규모의 한정성으로 인해 연구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조손가족의 특성상 통제집단 선정이 어려워 단일사례로 설계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에 조부가 포함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